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 최선 다하겠다”



공영민 고흥군수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담

우주항공 중심도시 자리매김...발사체 클러스터 속도 '드론 택시' 등 관광객 천만시대 이끌 프로젝트 실현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지난 1년은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기대가 현실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고흥 인구 10만 상황을 강조했다.

공 군수는 무엇보다 1년간 고흥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으며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며 선도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흥군의 접근성 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며 정주 여건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의 율촌1산단 입

주도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완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판단했다.

공 군수는 “중양부처의 견해도 접근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는 만큼 기업 유치 및 우주 클러스터 조성에도 꼭 필요한 고흥 나로우주센터-광주시간 고속도로 및 철도가 도입을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드론(UAM) 실증 및 상용화 선점도 드론 중심도시 입지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별고-고흥역-녹동역 철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를 꼽았다.

또 ▲녹동신항 제주물류기지화 및 고흥-제주 농수산물 유통 확대 추진 ▲고흥 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군민 복지 실현 ▲귀농어귀촌 1번지, 인구 유입전략 차별화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군민통합의 군민이 행복한 고흥 실현 등을 대표적 성과로 내세웠다.

이어 앞으로 3년간의 군정 운영은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의 기반 구축' 비전 실현 본격화 및 고흥의 희망찬 미래를 견인할 핵심사업 추진에 목표를 뒀다.

관광산업은 1000만 관광객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드론 택시(UAM) 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 군수는 우선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한 힘찬 도약 ▲접근성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고흥 건설 ▲지역발전 지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을 위한 여건 조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감동을 드리는 촘촘한 복지 및 맞춤형 인재 양성 ▲차별화된 인구 유치 전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함께 누리는 고흥 문화와 역사, 체육 환경 조성 ▲군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청정

고흥 건설 ▲친절과 청림이 고흥군정의 대표 브랜드, 소통행정 구현할 계획이다.

공 군수는 고흥군이 민선 8기 1년을 맞아 군민 109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군정 만족도 조사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84.3%, ‘잘못하고 있다’는 15.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업별 만족도를 보면 우주항공 시책 추진이 89.4%,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이 89.1%로 매우 높았고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88.7%, 도로교통 및 정주기반 확충이 87.8% 순이었다.

공 군수는 이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고흥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취임 초부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군민 통합의 바탕 위에서 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도입 1년만에 7억 지급

1065명 평균 66만원

순천시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1년 만에 1065명의 근로자에게 7억7000만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1111건이 접수됐다. 이중 1065건을 지급해 실지급률이 95.8%에 이른다. 평균 14.7일에 총 7억721만8980원, 평균 66만4055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연향동에 거주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50대 김 모 씨로 근로경력 관련 질환으로 90일간 입원했으며, 415만6200원을 지원받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순천시 거주 중인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주소지 무관)이며,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도 수급이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 하루에 4만6180원(최저임금의 60%)을 지원받는다.

상병수당 관련 접수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공공지사로서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옥곡 묵백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1억 확보

광양시는 하천 재난예방 대책을 위한 '옥곡 묵백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묵백천은 지방하천으로 옥곡면 묵백리 삼존마을에서 먹방마을까지 1.0km구간이다. 하천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가 도로를 범람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하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묵백천 정비를 건의했고, 묵백천에 연접한 삼존마을-먹방마을 농어촌도로(205호선) 공사도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한 결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 확보로 묵백천 삼존마을에서 먹방마을까지 하천호안(너비=1.07km, 높이=2.0m)을 정비하게 됐다. 묵백천에 연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삼존마을에서 먹방마을간 농어촌도로 205호선도 내년 상반기 조기 준공이 가능하게 됐다.

정은태 광양시 안전도시국장은 “금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묵백천을 정비함으로써 재해피해를 예방하게 됐다”면서 “옥곡면 묵백리 삼존마을에서 대주리 오동마을까지 농어촌도로 3.05km를 조기 준공할 수 있어 교통 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문화관광 부문 대상

곡성군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문화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주)가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곡성군은 관광트렌드 변화와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기존 축제를 전략적으로 개선했다.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축제를 개최하며 차별

화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곡성만의 3대 명품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곡성 심청어린이 축제를 탄생시켰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곡성의 문화관광정책이 인정을 받아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전례의 자연환경과 색다른 감성이 돋보이는 생태힐링의 지역특화 G-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

수인성 감염병 꼼짝마

구례군 비상방역체계 운영

구례군이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 유행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종류로는 비브리오패혈증,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이 있다.

그 중 치사율이 30% 이상인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미생물에 오염된 어패류 섭취로 인해 감염되거나 피부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과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고위험군인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면역저하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물은 끓여 마시기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사용한 도마나 칼 등은 반드시 소독, 수돗물에 씻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형진 구례군보건소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7월호

2023년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Busker Busking

거리공연, 버스킹이 뜬다

왜 버스킹인가?
그거리의 브랜드가 된 버스킹
광주 버스킹 월드컵

호남의 누정①-프롤로그

유순한 산야에 앉은 우리 '누정'을 알현하다

숲의 향기
들의 숨결
적벽 절경

화순 여행

화순 적벽 | 만연산 치유의 숲 | 수만리 생태습곡원
화순 고인돌 유적지 | 개천사 비자나무숲 탐방로 | 영선순례길
오주원 기마술 손두부 | 원우목장 '오쿠' | 카페 '도국에서'

사진으로 만나는 2023 호남예술제
세계 무대 빛벌
예술 꿈나무들의 무대
68회 호남예술제 열민 경연

에ditorial

원자에서 인간, '빅 히스토리' 역은 물리학자
김상욱
“물리학자는 우주의 시(詩)에 반한 사람”

문화를 품은 건축물②
우재길미술관
‘우재길 미술’ 모티브 삼은 ‘빛을 담은 미술관’

특별기획-신진남관망여지도 ②
올 여름, 웰니스 관광지와 사찰에서 힐링하세요?

특별기획-‘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②
목포 9미를 아세요?

해외문화기행 ⑥-프랑스 파리
여행객들의 낭만도시 에펠탑, 루브르, 몽마르트르의 추억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⑨
배고픈 다리에서 배부는 다리로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⑦
5·18 광주로 택시 유턴, 학살의 기억이 연대의 역사로 전환